

---

2021년도

#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분석

---

2022. 2.



해양수산부  
해사안전관리과

## 1. 해적사건 발생현황

- (전 세계) '21년 해적사건은 총 132건으로 전년(195건) 대비 32.3% 감소
- 선박피랍은 1건 발생하여 전년(3건) 대비 감소하였으며, 선원납치 피해는 57명으로 전년(135명) 대비 57.7% 감소
  - (아덴만·소말리아) 공격시도 1건 발생('19~'20년 해적사건 미발생)
  - (서아프리카) 총 35건 발생하여 전년(84건) 대비 58% 감소하였으나, 전 세계 선원납치피해가 모두 서아프리카에서 발생(57명)
  - (아시아) 총 59건 발생하여 전년(76건) 대비 22.4% 감소
  - (아메리카) 총 36건 발생하여 전년(30건) 대비 20% 증가



【연도별 해적사건 발생 건수(2017 ~ 2021)】

(단위 : 건)

구 분		2017	2018	2019	2020	2021
전 세계	해적공격	180	201	162	195	132
	(선박피랍) (선원납치/명)	(6) (75)	(6) (83)	(4) (134)	(3) (135)	(1) (57)
동아프리카 (소말리아)	해적공격	12 (9)	5 (3)	4 (0)	4 (0)	2 (1)
서아프리카		45	82	67	84	35
아시아		95	85	62	76	59
아메리카		28	29	29	31	36

## 2. 해적사건 동향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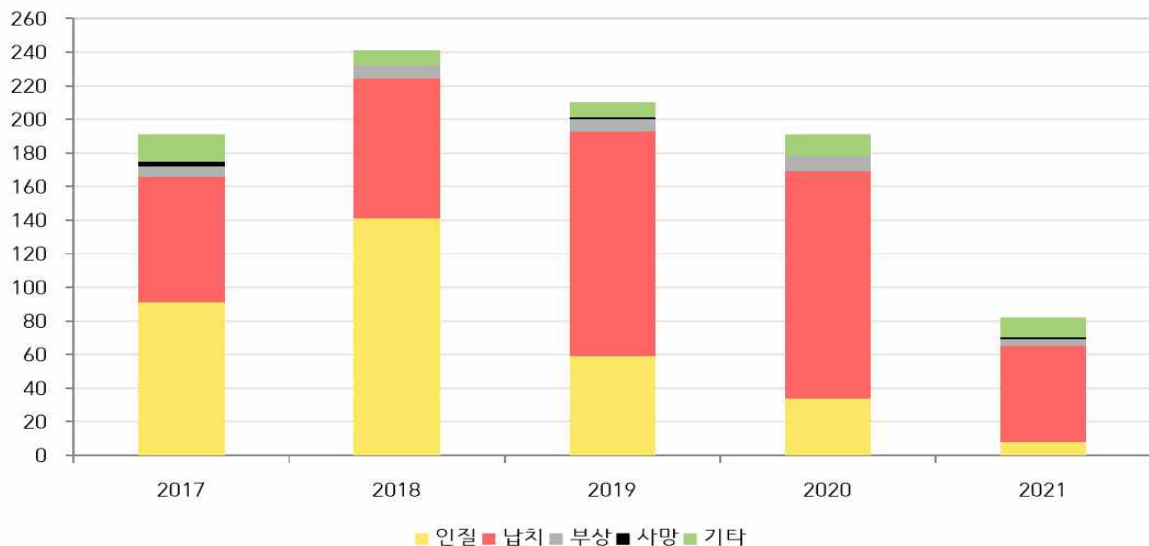
□ (인명 피해) 총 82명으로 전년대비(191명) 57% 감소, 선원납치 피해자수는 57명(우리국민 5명 포함)으로 최근 5년 이래 최저

○ 선원납치 피해는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, 그 중에서도 베냉 등 고위험해역\*\*에서 집중 발생

\* (선원납치 피해현황) 베냉(20명), 상투메 프린시페(15명), 가봉(11명), 적도기니(6명), 가나(5명)

\*\* 최근 3년간('17~'19년) 서아프리카 해역 선원납치 현황을 분석하여 해적사건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(90% 이상) 지역을 선정('20.7.3~, 나이지리아, 베냉, 토고, 카메룬 인근 해역)

- 특히, 서아프리카 현지 외국적 어선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국민이 납치되는 사건이 2건 발생 \* 우리국민 피해현황 : 베냉(4명), 가나(1명)



【연도별 선원 피해현황 (2017 ~ 2021)】

(단위 : 명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연간 합계	191	241	210	191	82
사 망	3	0	1	0	1
부 상	6	8	7	9	4
인 질	91	141	59	34	8
납 치	75	83	134	135	57
기 타(폭행·위협)	16	9	9	13	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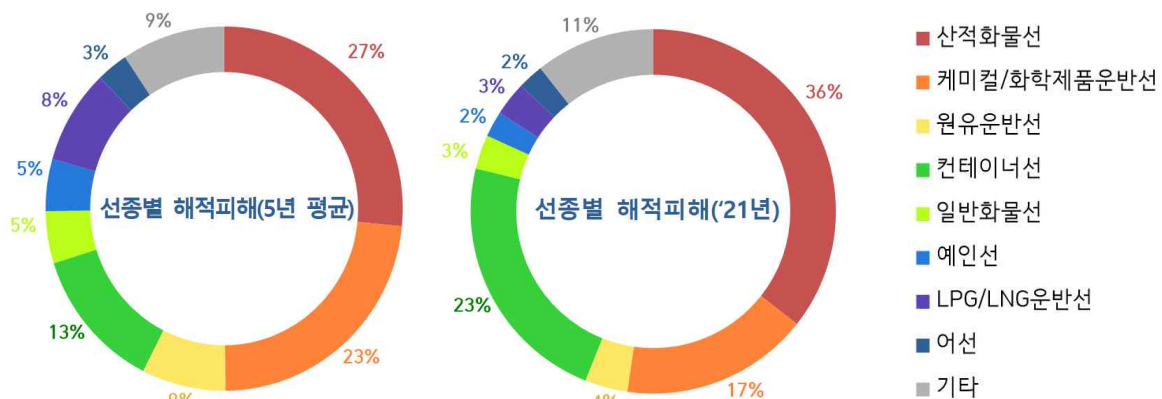
□ (선박피해) 선종별로 산적화물선(47척), 컨테이너선(30척), 케미컬·화학제품 운반선(22척) 순으로 피해 발생

○ 산적화물선 등 일부 취약선박\*이 주된 공격 표적이 되고 있으나, 운항상태에 따라 모든 선박이 해적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\* 선박 및 화물 특성으로 인하여 건현이 낮고 선속이 느린 선박

○ 어선에 대한 해적피해가 3건 발생하여 전년(6건)대비 감소

- 어선에 대한 피해는 전체(132건)의 약 2.7%에 불과하나, 모든 어선 관련 사건에서 선원납치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



【선종별 해적피해 현황 (2017 ~ 2021)】

(단위 : 척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계	180	201	162	195	132
산적화물선	38	59	46	51	47
케미컬/화학제품 운반선	42	50	45	53	22
원유운반선	19	16	19	10	5
컨테이너선	23	18	17	27	30
일반화물선	12	6	7	13	4
예인선	14	11	7	7	3
LPG/LNG운반선	14	8	8	4	4
어선	1	12	4	6	3
기 타	17	21	9	24	14

○ (선박피랍) 서아프리카 가봉 연안에서 1건 발생, 최근 5년 이래 최저

\* '18년 이후 해적에 의한 선박피랍 사건은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

- 해적들이 피해선박 위치정보 노출에 따른 연안국 해군 등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, 선박을 피랍하기 보다는 선원을 납치하는 경향

연번	일자	선명/국적	선 종	선박 상황	사건해역	특이사항
1	2.8	A호/중국	어선	항해중	가봉 연안	선박 구조 선원 10명 납치

□ (해적공격 유형) 전체 해적공격(132건)의 87.9%(116건)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12.1%(16건)는 미수에 그침

○ (운항상태) 해적공격(132건)의 52.3%(69건)는 접안·정박\*중에 발생, 항해 중에는 47.7%(63건) 발생

- 싱가포르 해협은 모든 해적사건(35건)이 항해 중에 발생한 반면, 페루는 모든 해적사건(18건)이 정박 중에 발생

\* 해적공격 실제피해 발생율 : 접안·정박중(92.7%), 항해중(82.5%)

#### 【2021년 운항상태 별 해적사건 현황】

(단위 : 건)

선박의 상태	계	실제 피해	공격 미수
계	132	116	16
접안중(berthed)	9	9	-
정박중(Anchored)	60	55	5
항해중(steaming)	63	52	11

## 1. 동아프리카 해역

- (현황) 총 2건 발생, 이 중 1건\*은 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, 다른 1건은 모잠비크 해역에서 발생

\* '21.1.14(목) 항해중인 마살제도 국적 산적화물선에 무장한 해적이 사다리를 탑재한 소형보트로 0.2마일 거리까지 접근, 해상특수경비원의 대응사격으로 도주

## 【 연도별 동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건 현황(2017 ~ 2021) 】

(단위 : 건)

구 분	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계		10	3	3	3	2
동아프리카 해역	아덴만	2	1	0	0	1
	홍해	1	0	0	0	0
	소말리아	4	1	0	0	0
	모잠비크	2	1	2	3	1
	케냐	1	0	1	0	0

- (분석) 해적퇴치를 위한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의 해양안보작전 수행,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으로 해적사건이 억제되고 있으나 위험성 상존

- 소말리아 해적은 중화기로 무장하고 모선(Mother Vessel) 및 소형 선박(Skiff)을 운영하는 등 현재도 충분한 공격능력 및 장비 보유

◇ (주의사항) 소말리아 어선은 설치된 그물을 보호하기 위해 상선에 접근하거나, 어획물 탈취를 방어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

- 모잠비크 해역에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해적사건 발생

☞ 해적 공격시도와 지속적인 해적 의심선박 목적은 동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냄

☞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항상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, 해적 피해예방 대응지침(BMP5)과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해적피해 예방·대응 지침서에 따른 조치 필요

## 2. 서아프리카 해역

□ (현 황) 전 세계 해적사건(총 132건)의 약 26.5%(35건)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, 전년(84건) 대비 약 58% 감소

○ (선원납치 피해) 전년(130명) 대비 56.2% 감소한 57명의 납치피해가 발생하였으나, 베냉 등 기니만 해역\*에서 여전히 선원납치 피해 집중

\* 베냉(20명), 상투메 프린시페(15명), 가봉(11명), 적도기니(6명), 가나(5명)

○ (우리국민 피해) 가나, 베냉 인근 해역에서 현지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중이던 우리국민(5명) 납치 사건 2건 발생

피랍(석방)	선박명	국적(선종)	세 부 내 용
'21.5.20. ( '21.6.29.)	A호 (우리국민 1명 승선)	가나 (원양어선)	가나 인근 해상, 우리국민 1명 납치, 41일만에 석방
'21.6.1. ( '21.8.1.)	B호 (우리국민 5명 승선)	가나 (원양어선)	베냉 인근 해상, 우리국민 4명 납치 62일만에 석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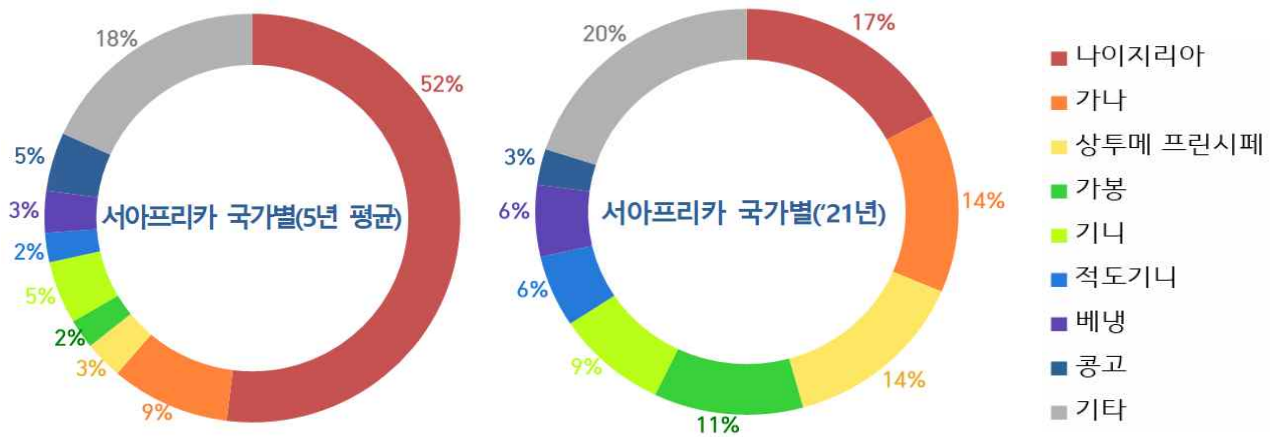
○ (운항상태별 피해) 항내 정박·접안 중 피해(18척), 항해중 피해(17척)

### 【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건 발생현황 (2017 ~ 2021)】

(단위 : 건)

구 분	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계		45	82	67	84	35
서아프리카 해역	나이지리아	33	48	35	35	6
	가나	1	10	3	9	5
	상투메 프린시페	1	-	1	2	5
	가봉	-	-	1	2	4
	기니	2	3	2	5	3
	적도기니	-	-	2	3	2
	베냉	-	5	3	11	2
	콩고	1	6	3	3	1
	기타	7	10	17	14	7

\* 기타 : 앙골라 (4건), 카메룬(1건), 라이베리아(1건), 콩고공화국(1건)



【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건 발생현황 (2017 ~ 2021)】

□ (분 석) 연안국 및 연합해군\*의 해적퇴치 노력으로 전체 해적피해는 상당수 감소하였으나, 해적위협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

\* '21년부터 동 해역에서 EU 국가 5개국(프랑스, 이태리, 스페인, 포르투갈, 덴마크) 함정이 파견되어 해양안보활동 중

○ 전체 인명피해(82명)의 76.8%(63건) 발생, 전 세계 선원납치피해(57명)가 모두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집중

\* (서아프리카 해역 인명피해) 납치 57명, 인질 2명, 사망 1명, 부상 2명

○ 나이지리아의 경우 Deep Blue Project\* 및 해적방지법 시행 등 당국의 해상보안 강화 노력의 영향으로 해적사건이 대폭 감소\*\*

- 하지만, 기니만 연안국의 불안정한 정치·경제, 빈곤, 취약한 치안 상황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해적피해 증가 가능성 상존

\* 나이지리아 정부가 해적행위 근절 및 배타적경제수역 감시목적으로 공식출범('21.6)

\*\* 나이지리아 해적사건 발생현황 : '17(33건)→'18(48건)→'19(35건)→'20(35건)→'21(6건)

☞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건은 몸값을 노린 선원납치 피해가 집중 발생

☞ 나이지리아 해역의 해적사건 감소에도 불구하고,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등 여전히 기니만 해역(고위험해역)에서 해적사건 발생위험은 상당히 높음

☞ 우리부에서 설정하여 권고 중인 고위험해역\*의 진입을 자제하고, 위험해역 진입시에는 선원대피처 설치,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안전조치 및 해적피해 예방·대응 지침서에 따른 해적피해예방대책의 철저한 이행 필요

\* 현 권고 중인 고위험해역은 「해적피해예방법」 개정시행('22.2.18.)에 따라 법제화 예정



### 3. 아시아 해역

□ (현 황) 총 59건 발생하여 전년(76건) 대비 **22.4% 감소**

- 전 세계 해적사건(132건)의 **44.7%(59건)**가 동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, 특히, 싱가포르 해협에서 해적활동 증가
- (싱가포르 해협) '19년부터 생계형 해상강도 사건 집중 발생  
\* '18년(3건) → '19년(12건) → '20년(23건) → '21년(35건)
- (기타)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 대다수 지역에서 해적사건 감소

**【연도별 아시아 해역 해적사건 발생현황(2017 ~ 2021)】**

(단위 : 건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계	95	85	62	76	59
인도네시아	43	36	25	26	9
말라카 해협	0	0	0	0	1
말레이시아	7	11	11	4	2
필리핀	22	10	5	8	9
싱가포르 해협	4	3	12	23	35
베트남	2	4	2	4	1
태국	0	0	0	1	-
중국	2	3	3	0	-
인도	4	6	4	6	2
방글라데시	11	12	0	4	-

□ (분 석) 연안국 및 ReCAAP 등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아시아 해역 전체 해적활동은 감소하였으나, 싱가포르 해협에서 해적활동 증가

☞ **아시아 해적퇴치 협정**(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in Asia)

\* 협정채택('04.11.11), 한국 가입('06.4.7), 협정 발효('06.9.4)

- (싱가포르 해협) '21년 총 35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하여, 아시아 전체 사건의 59.3%(59건)가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
  - 주로 야간에 동쪽으로 항해하는 취약선박\*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공격을 시도하고 선원에게 발각 시 바로 도주하는 경향
    - \* 선박 및 화물 특성으로 인하여 견현이 낮고 선속이 느린 선박
    - \*\* (선종별 해적피해) 산적화물선 23척, 탱커선 8척, 예인선 2척, 기타 2척
- (인도네시아) 총 9건 발생하여 전년(26건) 대비 65% 감소하였으며, 모두 접안 또는 정박 중 발생
  - 인도네시아 해경의 순찰 강화 영향으로 해적사건 상당수 감소
- (필리핀) '17년부터 급증하던 민다나오(Mindanao) 지역의 반군세력에 의한 해적사건이 정부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감소 추세
  - 최근 마닐라항 정박지에서 생계형 해상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해역 내 정박·접안 예정인 선박은 철저한 대비 필요
- (말레이시아) 당국의 노력으로 최근 5년간 해적사건 지속 감소

☞ 싱가포르 해협 및 인도네시아 인근 해상에서 금품 탈취 목적의 해적활동이 증가추세로, 상기 해역 통항 시 철저한 대비 필요

\* 추가 견시원 배치, 해적피해예방 당직수행 등 해적피해예방요령 준수

## 4. 아메리카 해역

□ (현 황) 총 36건 발생하여 전년(30건) 대비 20% 증가

○ 32건의 해적사건이 표박 중 발생하였으며, 4명의 인질피해 발생

【아메리카 해역 해적사건 발생현황 (2017 ~ 2021)】

(단위 : 건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계	24	29	29	30	36
브라질	0	4	2	7	3
멕시코	0	0	1	4	1
에콰도르	2	4	3	5	4
콜롬비아	6	1	3	1	6
페루	2	4	10	8	18
아이티	1	3	2	5	4
베네주엘라	11	8	6	-	-
기타	2	5	2	-	-

□ (분 석) 해적공격이 '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표박지에서 발생, 최근에는 총기를 사용하여 항해 중인 선박까지 공격

○ 동 지역 해적들은 선원들과 대치하거나 공격하지 않지만, 멕시코, 에콰도르 인근해역에서 총기소지 무장해적에 의한 피해 발생

○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, 내부 사정에 의한 경제붕괴 상황에서 해적활동 증가 가능성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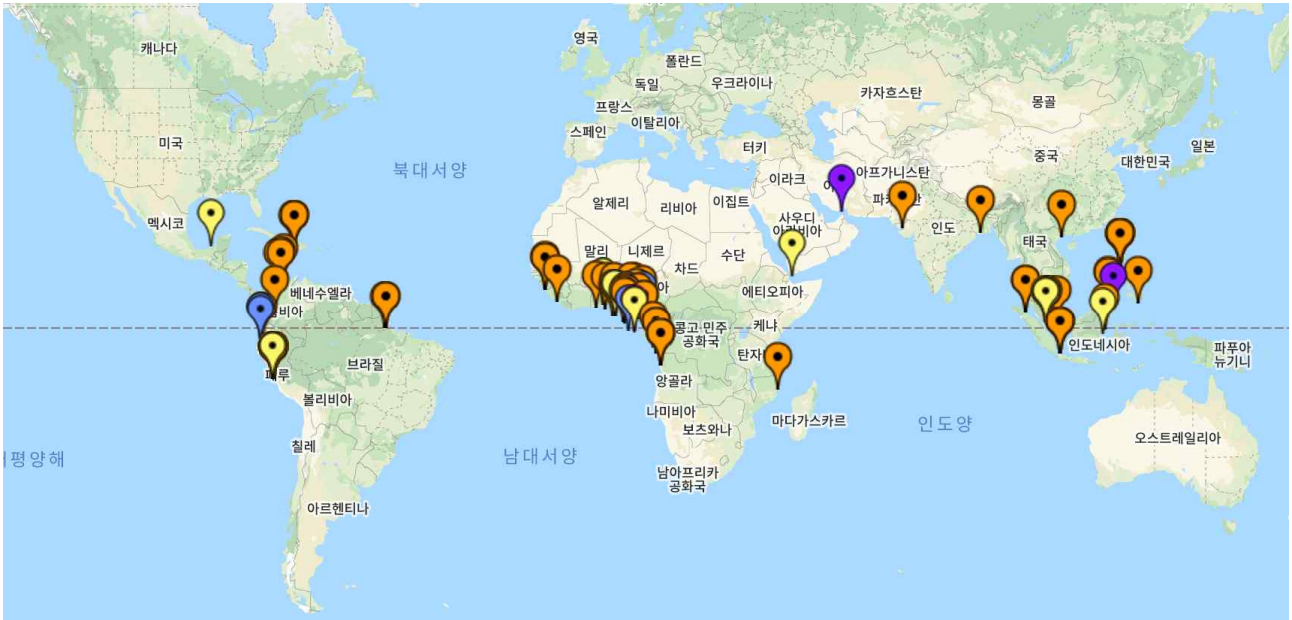
☞ 해적활동 해역에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우회 통항, 연안국 통항보고 등 해적피해 예방조치 지속적 이행 필요

## 참고

## 해역별 해적사건 발생 현황 ('21년)

### □ 전 세계 해역(132건)

● = Attempted Attack   
 ● = Boarded   
 ● = Fired upon   
 ● = Hijacked   
 ● = Suspicious vessel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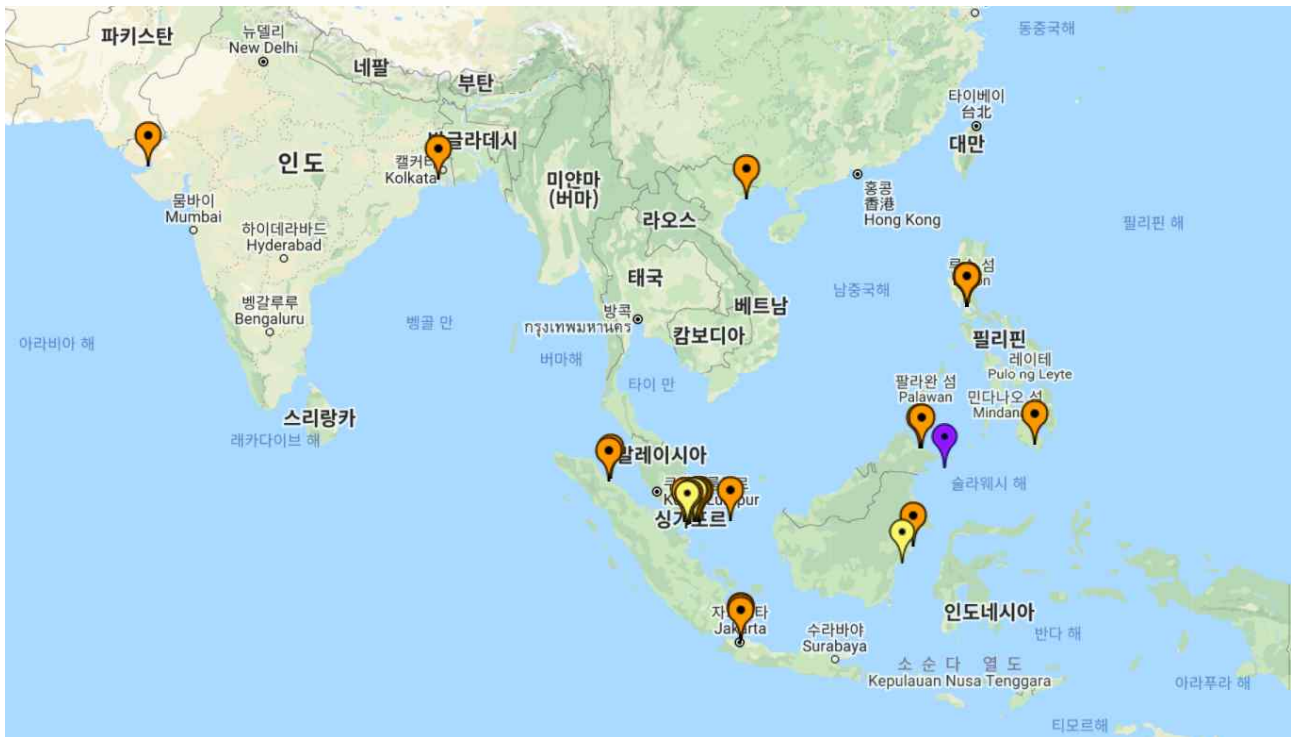
### □ 서아프리카 인근 해역(35건)

● = Attempted Attack   
 ● = Boarded   
 ● = Fired upon   
 ● = Hijacked   
 ● = Suspicious vessel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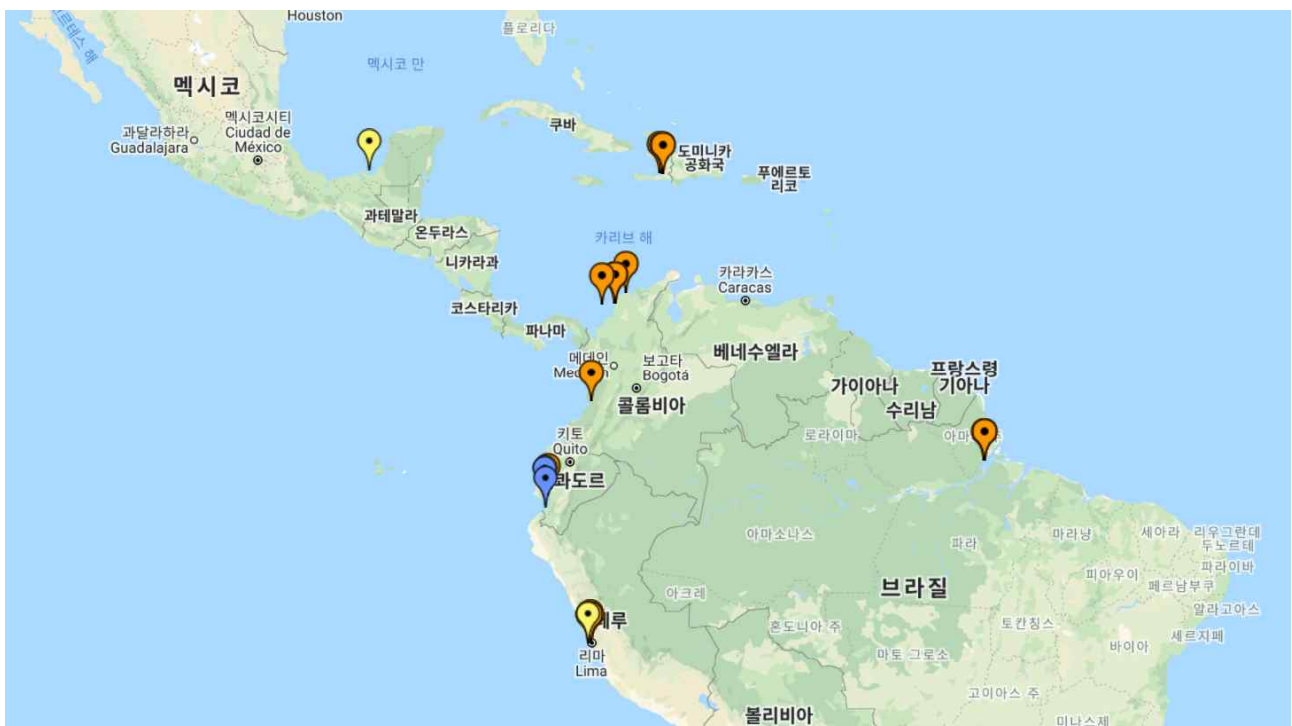
## □ 아시아 인근 해역(59건)

📍 = Attempted Attack   
 📍 = Boarded   
 📍 = Fired upon   
 📍 = Hijacked   
 📍 = Suspicious vessel



## □ 남아메리카 인근 해역(36건)

📍 = Attempted Attack   
 📍 = Boarded   
 📍 = Fired upon   
 📍 = Hijacked   
 📍 = Suspicious vessel





## □ 동아프리카 인근 해역(2건)

📍 = Attempted Attack   
 📍 = Boarded   
 📍 = Fired upon   
 📍 = Hijacked   
 📍 = Suspicious vessel

